

“심판 편파판정에 당했다” 여자 핸드볼 8강행 좌절

세계선수권 16강전 러시아에 25-30 패배

여자핸드볼대표팀이 제22회 세계선수권대회 8강 진출에 실패했다.

대표팀은 15일(한국시간) 덴마크 콜링에서 열린 러시아와의 16강전에서 25-30으로 완패했다. 전반을 13-16으로 밀리는 등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패해 14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세계선수권은 2년마다 개최되는데 한국은 2011년 브라질, 2013년 세르비아대회에 이어 3회 연속으로 16강에서 좌절했다.

핸드볼의 특성상 심판의 영향력이 절대적인데 대표팀은 또 다시 치명적 불이익을 당했다. 대표팀 임영철 감독이 “러시아의 오버스텝은 거의 불리지 않았고, 우리 선수들의 퐁개에는 번번이 오픈스 파울이 붙었다. 2분간 퇴장도 러시아는 단 두 번에 불과했던 반면 우리는 7번이나 당했다. 14분을 선수 한 명 없이 플레이했으니 이기기 쉽지 않았다”며 분을 삭이지 못할 정도였다. 8일 조별리그 C조 프랑스전에서 골라인을 넘어간 명백한 득점이 비디오 판독까지 했음에도 무효로 판정돼 국제핸드볼 연맹(IHF) 하산 무스타파 회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까지 했음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로써 남자핸드볼대표팀이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본선 티켓을 따내지 못한 데 이어 여자핸드볼대표팀마저 세계의 벽에 막혔다. IHF에 미치는 대한핸드볼협회의 외교력은 또 한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SK가 대한핸드볼협회를 맡은 뒤 국제경쟁력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현대글로비스 럭비단 창단 한국럭비 ‘희망의 빛’ 찾다

내년 18명 추가 30여명 규모로 선수단 확대

척박한 한국럭비에 모처럼 희망의 빛이 향하고 있다.

종합물류유통기업 현대글로비스가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에서 ‘현대글로비스 럭비단’ 창단식을 열었다. 인천광역시를 연고로 한 현대글로비스 럭비단은 인천남동아시아드럭비경기장을 홈구장으로 활용한다. 초대 단장은 한용빈 씨가 맡고, 국가대표 사령탑을 지낸 정삼영 감독이 첫 지휘봉을 잡았다.

올해 초 럭비계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삼성중공업 럭비단이 해체되면서 남은 실업팀은 포스코건설, 한국전력 등 2개에 불과했다. 럭비 저변이 크게 흔들렸다. 실업 진출의 길이 끊기면 아마추어 유망주들은 자연스레 운동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한해가 지나기 전에 현대글로비스가 창단을 선언해 럭비계의 고민을 덜어줬다. 사회공헌을 위해 기업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아마추어 스포츠단 창단을 고려하다 럭비를 선택했다. 이상웅 대한럭비협회장은 “어린 선수들이 계속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말했고, 한 단장은 “팀워크와 도전정신이 중요한 럭비는 모기업에도 큰 영감을 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내년 3~4월 춘계리그 참가를 목표로 동계훈련에 나설 현대글로비스 럭비단은 12명의 선수단으로 첫 발을 내디뎠고, 내년 18명을 추가해 30여명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말레이시아·스리랑카 국가대표 초청 합동훈련

대한체육회가 말레이시아 세팍타크로국가대표선수단과 스리랑카 카바디국가대표선수단을 초청해 한국국가대표선수들과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세팍타크로 합동훈련은 15~27일 진천선수촌에서 실시되며, 말레이시아 선수단 24명이 참가한다. 스리랑카 선수단 16명이 참여하는 카바디 합동훈련은 16~23일 부산 동아대학교에서 진행된다. 개도국 초청 합동훈련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재원으로 2013년부터 3년째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13개국 13개 종목에서 해외 선수단 185명이 참가했다.

평창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홈페이지 오픈

내년 2월 개최 예정인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테스트 이벤트 홈페이지가 15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15일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첫 테스트 이벤트인 ‘2016 Audi 스키 월드컵’과 ‘스노보드 월드컵’, ‘프리스타일 스키 월드컵’ 등 3개 대회의 각종 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http://www.hellopyeongchang.com)를 국문과 영문으로 제작해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는 대회별 종목 소개와 경기일정, 경기장 등의 코너 등으로 구성돼 있다.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24세 김희진 트리플 크라운 ‘전설의 시작’



IBK기업은행 김희진이 13일 흥국생명과의 3라운드 홈경기에서 올 시즌 V리그 여자부 첫 번째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이로써 김희진은 ‘살아있는 전설’ 황연주, 김연경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스포츠동아DB

V리그 역대 국내여자선수 트리플 크라운 일지(15일 현재)							
순서	통산	선수(소속)	시즌	달성일	상대	장소	기록 (득점/후회/세브블로킹)
1	1호	황연주(흥국생명)	2005~2006	2006.1.7	현대건설	천안	34/8/3/3
2	2호	김연경(흥국생명)	2005~2006	2006.2.8	GS칼텍스	울림픽2체	43/10/4/3
3	6호	황연주(흥국생명)	2007~2008	2007.12.1	KT&G	천안	30/5/3/3
4	8호	김연경(흥국생명)	2007~2008	2007.12.9	도로공사	구미	27/5/4/3
5	14호	황연주(흥국생명)	2008~2009	2009.1.10	KT&G	천안	15/5/3/3
6	15호	김연경(흥국생명)	2008~2009	2009.1.29	현대건설	울림픽2체	30/3/3/4
7	22호	황연주(현대건설)	2011~2012	2011.10.23	흥국생명	인천도원	25/7/3/3
8	53호	김희진(IBK기업은행)	2015~2016	2015.12.13	흥국생명	화성	28/3/3/3

국내여자선수 3번째·통산 8번째 ‘트리플 크라운’ 달성 의미

V리그 황연주·김연경 2명만 보유한 대기록
큰 공격·빠른 공격 두루 가능한 미들블로커
체력훈련으로 파워·타점 향상 매시즌 발전

IBK기업은행 김희진(24)이 마침내 올 시즌 첫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13일 화성에서 벌어진 흥국생명과의 ‘2015~2016 NH농협 V리그’ 여자부 3라운드 홈경기에서 국내여자선수로는 3번째이자, 통산 8번째 대기록을 세웠다. 외국인선수까지 포함하면 역대 53번째다. 이날 28득점, 36%의 공격점유율, 40%의 공격성공률을 기록한 김희진은 백어택, 블로킹, 서브를 각각 3개씩 성공시켰다. V리그 12시즌 동안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토종여자선수는 황연주(29·현대건설)와 김연경(27·페네르바체)뿐이었다(표 참고). 황연주가 2011년 10월 23일 흥국생명전에서 달성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만큼 V리그의 전설급 공격수에 계단 하락된 ‘좁은 문’이었다. 이제 스물네 살인 김희진은 V리그 5시즌 만에 그 문을 열고 전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한다.

●언젠가는 할 것으로 믿었지만 기대보다 늦었던 트리플 크라운

김희진은 그동안 몇 차례 트리플 크라운 달성 기회를 얻었다. 외국인선수 데스티니가 부상으로 빠진 지난 시즌 라이트로 전환해 큰 활약을 펼쳤다. 그 때는 서브나 블로킹에서 모자랐고, 올 시즌에는 2라운드 흥국생명전 때 백어택 2개가 모자라 아쉽게 기회를 놓쳤다. 이날 경기에선 1·2세트 각각 블로킹 1개씩을 성공시킨 뒤 3세트 연달아 3개의 에이스와 2개의 백어택을 성공시켜 트리플 크라운을 가시권에 넣었다. 4세트를 앞두고 동료들은 “백어택과 블로킹이 한 개씩 남았다”고 귀띔해줬고, 이 때부터 내심 기대는 했다. 김희진은 4세트 2-0에서 먼저 블로킹을 성공시켜 3개를 채운 뒤 20-14에서 백어택으로 마침내 트리플크라운을 완성했다. 경기 진행상 이번 후위 포지션에서 득점하지 못하면 기회를 날릴 뻔했는데, 노련한 세트 김사니가 이를 잊지 않고 적절한 타이밍에 백어택 공격을 연결해줬다.

토종선수 가운데 김희진만큼 백어택, 블로킹, 서브 능력을 두루 갖춘 선수가 드물기에 “언젠가는 할 것”이라고 배구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더욱이 올 시즌 드래프트로 V리그에 데뷔한 외국인선수들의 서브가 눈에 띄게 약해 김희진은 유력한 트리플 크라운 달성 후보였다. 김희진은 “이전에 한두 번 기회가 있었는데 놓쳐서 내게는 기회가 오지 않을 줄 알았다. 사실 흥국생명전에는 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서브가 연속 3개 터지면서 됐다”고 기록 달성의 순간을 떠올렸다.

올 시즌 팀이 예상 밖으로 흔들려 고민이 많은 이정철 감독은 흥국생명전 승리로 2개의 성과를 얻었다. 상위권 경쟁자 흥국생명에 3연승을 거뒀다. 승차는 2승으로 좁혔고, 승점차는 2로 더 좁혀져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그동안 부침이 심했던 김희진이 트리플 크라운을 계기로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많은 기대는 심리적 부담이 되다!

김희진은 현재 한국여자배구를 대표하는

공격수 가운데 한 명이다. 루키였던 2011~2012시즌 265득점을 기록한 이후 423~514~516득점으로 매 시즌 눈에 띄는 발전을 이뤄왔다. 체력훈련을 통해 파워와 타점도 향상시켰지만, 지난 시즌부터 상대의 빈틈을 보는 눈이 확연히 좋아졌다. 이정철 감독이 자주 말하던 ‘성장’이었다.

2014인천아시안게임에서 보여줬던 김희진의 활약은 올해 8~9월 일본 월드컵에서 더 빛났다. 큰 공격과 빠른 공격이 두루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미들블로커로서의 능력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김연경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표적 공격 옵션 가운데 하나가 된 김희진은 미들블로커 가운데 특점 순위 정상에 올랐다.

그런 화려한 전적이 있었기에 모두들 올 시즌은 김희진의 해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의외로 부진했다. 성적이 롤러코스터를 탔다. 에이스가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자 IBK기업은행 또한 예상했던 만큼 앞으로 치고나가지 못했다. 김희진은 “심리적으로 부담이 컸다. 지난 두 시즌 동안 좋았고, 지난해에는 외국인선수 없이도 잘 해냈고, 대표팀에서도 잘 해서 기대가 컸는데 이것이 나를 압박했다”고 털어놓았다.

게다가 팀의 필요에 따라 센터와 라이트를 오가는 포지션 변경으로 해야 할 것도 많았다. 원 공격수에게 필요한 큰 스윙과 센터 공격수에게 필요한 짧고 간결한 스윙을 두루 익히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공격 때 바라보는 상대 수비수의 위치도 달라야 했고, 여러 가지 생소함이 김희진에게 더 많은 고민을 요구했다. “아직 다 이겨내지 못했다. 지금도 많은 조언을 듣고 교정하고 있다”는 김희진은 매일 야간훈련을 통해 스윙을 바꾸고 있다.

●우리 팀의 부진은 모두 내 책임

중앙 공격수에서 원 공격수로의 변신. 김희진은 이정철 감독의 지시를 “좋지만 부담스럽고, 그러면서도 감사하다”고 표현했다. 그동안 원 공격수로 욕심이 있었다고 했다. “센터 공격수보다는 원 공격수가 코트에 더 오래 있을 수 있다. 항상 해보고 싶었던 자리”라고 밝혔다.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더 완벽한 배구선수가 되기 위해 많은 것을 하겠다는 의지가 넘친다. 김희진은 “기록에는 큰 욕심이 없다. 기록을 쫓다보면 팀보다는 개인을 앞세우게 된다. 단지 원 공격수로 황연주, 김연경 선배 다음으로 잘 하는 선수라는 인상을 심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모든 여자배구선수들의 롤모델인 김연경과 대표팀에서 함께 지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블로킹 수완기에 감탄했다. 김희진은 “이것만 있으면 잡겠다는 블로킹 단계에서 언니는 한 수를 더 보는 느낌이었다”고 설명했다. 15일 현재 9승4패로 3위를 달리고 있는 IBK기업은행은 트리플 크라운을 통해 모멘텀을 찾은 김희진을 앞세워 대만전을 노린다.

김희진은 “그동안 우리 팀의 조직력이 흔들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모두 내 잘못이다. 내가 제대로 점수를 내주지 못하면서 우리의 플레이가 소극적이 됐다. 이제 나만 잘하면 된다”고 다짐했다. 첫 트리플 크라운 달성으로 받을 상금 100만원의 용도에 대해선 “우리 팀에서 처음 나온 기록이고 의미가 있어 동료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전날 같이 즐겁게 쓰겠다”고 밝혔다.

김종현 전문기자 marco@donga.com



2015 동아마라톤 올해의 선수상 시상

‘포카리스웨트와 함께하는 2015 동아마라톤 올해의 선수상 시상식’이 15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렸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홍서민 씨(왼쪽 7번째)를 비롯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원진 동아일보 기자 laputa@donga.com



동아마라톤 꿈나무 장학금 수여

동아마라톤꿈나무재단은 15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동아미디어센터에서 남녀 고교마라톤 유망주 15명(조준행, 소유준, 양지호, 황도호, 이동진, 이광식, 송윤화, 이경호, 정다는, 이희주, 이재영, 정혜원, 김령이, 정세현, 박영선)에게 2015년 동아마라톤 꿈나무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연택 재단 이사장(뒷줄 왼쪽 6번째)과 오동진 대한육상경기연맹 회장(뒷줄 왼쪽 5번째)이 마라톤 꿈나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arineboy@donga.com